

●李大鎔이사장 대통령상 수상

李大鎔이사장이 지난해 11월22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4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李이사장은 81년 4월 취임한 이후 새마을운동을 통해 선진조국건설을 선도하는 한편 국력신장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데 따른 공로로 이 영예의 표창과 부상을 함께 수상하게된 것이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취급

협회는 85년 1월1일부터 전국 7대도시에 한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두어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스사고, 특히 LP가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비해 가스제조관련사업자나 대량가스 사용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손해배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정부에서 관련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인가한 상품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수건물의 신세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처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가스시설 일반점검 실시

협회는 3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국의 시장, 백화점, 호텔, 아파트등 고압가스 사용이 많은 건물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실시될 이번 일반점검의 대상건물 및 업소는 각 시, 도지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총대상중 50%이상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각 구청과 시, 군별로 실시되는 이 점검은 본협회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직원으로 편성되는 별도의 점검반이 전담하게되며, 점검결과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설보완은 1주일이내 시정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尹炳堧이사 취임

지난 1월22일 열린 임시사원총회는 임기만료된 洪聖浬이사 후임으로 尹炳堧 전 전매청관리국장을 새 이사로 선임하였다.

尹이사는 재무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후 전매청에도 잠시 몸담았었는데 앞으로 협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년 48세 서울산.

●신규직원 채용

기술직원 13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실무를 익히고 있다. 새로 채용된 직원은 84년 12월9일 협회가 실시한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했던 총3백2명의 지원자 가운데 최종 선발된 인재들로서 협회업무 전반에 걸친 1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2월21일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현재 각 부서에서 실무에 정진하고 있다.

●방재관계 공개강좌

방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제2회 방재관계 공개강좌가 지난 3월22일 한국수출산업공단 제5공단내 대우훈련원 강당에서 특수건물소유주 및 방화관리종사자, 그리고 소방관계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강좌에서는 「공단의 특수성과 위험관리」에 대한 삼성그룹 李鍾律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협회의 안전점검 및 보험업무등이 소개되었다.

●산업안전관리 종합진단

협회의 기술직원 4명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종합진단에 참여했다.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시된 이 종합진단은 대형 폭발사고나 가스누출사고등을 미리 막기위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국 6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종합진단에는 경제기획원주관하에 내무부, 동자부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본 협회등 유관기관 전문가등 총33명으로 구성된 2개의 종합진단반이 편성되어 참여했다. ■

●廉普鉉 시장 시 소방본부 순시

廉普鉉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2월5일 서울시 소방본부를 순시하고 8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연두순시에 나선 廉 시장은 『도시가 급격히 팽창, 폭발적으로 늘어나 과밀도 현상을 이루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소방의 비중이 더욱 높고 불에대한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긴급하다』고 말하고 『소방능력을 배양하여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소방관상을 정립, 안정된 사회의 지속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간부50명 탄생

소방학교 제4기 간부후보생 졸업식이 지난 2월 18일 내무부차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내무부연수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위 50명이 새로 탄생되어 앞으로 일선소방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본 협회 文元植이사가 참석했다.

●李在昌 민방위본부장 안양소방서 순시

내무부 李在昌 민방위본부장은 지난 2월10일 경기도 안양소방서를 불시에 들러 화재특별경계에 임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줄것과 시민구급활동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한 소방인의 참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석유난로 취급요령 및 소화기사용 시범대회

서울시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장안동 소방훈련장에서 유관기관, 기업체, 아파트관리소장, 특수건물 방화관리자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석유난로 취급요령 및 소화기 사용 시범대회를 가졌다.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가 겨울철 화재의 주 원인이 되고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하나로 실시된 이날 대회에서는 석유난로 안전취급 요령과 각종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및 구조대 사용법등에 대한 시범과 함께 소방장비 및 개발장구등이 소개되었다.

●85년도 소방력 보강계획

서울시소방본부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소방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86아세안게임 및 88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선수촌등 관련시설의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소방구급대의 증편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는등 완벽한 소방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신설 또는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의 확충으로 소방력을 보강키로 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소방서는 11개소로 소방관파출소는 66개소로, 출장소는 2개소로 각각 기구가 확장되며 소방차 297대, 소방용수시설 3,658개소를 보유하여 시내 어느 곳이나 5분이내에 출동, 초동진화로 대형화재를 막고 위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줄이는등 시민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생명63빌딩 소방안전종합대책 마련

서울시소방본부는 오는 5월경 개관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고층건물인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에 대해 방재시설의 적합여부검토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등 소방안전 특별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상6층 지하3층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오는 4월경 소방설비 완공검사전에 소방분야에 대한 최종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제1단계로 관계자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에는 동사옥 5층 회의실에서 소방당국,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기술사등 15명의 권위있는 전문가가 참석, 소방안전 평가회의를 가진바 있다.

제2단계조치로는 자체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제3단계로 자위소방능력 제고와 관·민연계로 입체적인 진압작전 전개등 전반적인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상공부장관 표창수상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인화)은 지난 2월 28일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거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23차 정기총회에서 우수(모범)협동조합으로 선정되어 상공부장관의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다. ■

● 손보사장단회의

한국보험공사는 지난 1월9일 엠배서더호텔에서 趙洪손보험회장을 비롯한 13개 손보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영업전략 및 모집질서개선, 손해보험 통계관리 지침등을 협의했다.

● 특별직무교육 실시

한국보험공사는 업계특수업무담당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기본연수계획에 특별직무교육과정을 편성, 85년 1~3월중에는 검사업무와 신용분석 및 생존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검사업무과정에는 각사 감사실 직원과 보험공사 검사부 실무요원, 그리고 신용분석 기초과정에는 신용분석업무 담당자가 참여토록 되어있다.

● 위험관리세미나 개최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월25일 대회의실에서 회원회사 및 유관기관의 위험관리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위험관리기능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개최된 이 세미나에는 金基允 광운대학교수가 초빙되어 「보유위험 분석모형」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 보험산업발전 연구반 편성

보험업계는 날로 증대되는 해외업계의 국내시장 개방 압력과 컨슈머리즘의 확산에 적극 대응키 위해 학계인사를 중심으로 연구, 조사반을 편성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李京龍 서강대학교수를 위원장으로 申守植(고대), 金炳寄(동국대) 교수를 위원으로 구성된 이 연구팀은 현행 보험판매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새로운 보험모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 및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업계의 문제점을 연구하게 될 것 이라 한다.

● 자동차통합보험 판매예정

손보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하나로 묶은 자동차통합보험을 새로 개발, 판매할 예정으로 있다.

이 보험이 판매되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2중으로 가입하던 불편을 덜게 되고 보험기간이 통일되므로 보험료 납입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 마이카적립보험 개발

「동양화재해상보험」은 자가운전자 또는 자가운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장과 저축을 겸한 신종 마이카적립보험을 단독 개발하여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월10일부터 시판하고 있다.

이 보험은 국내 최초의 적립형 교통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동안 차량감가상각비를 적립해뒀다가 무사고때 혹은 여러번 사고가 있더라도 1사고당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가입금액의 80% 이하일때는 납입보험료의 최고 116% 까지 환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 손보사 대부분 결산

3월말 결산법인인 손해보험회사들은 84회계연도 에도 대부분 결산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의 결산은 83년에 이어 연2년째로 일부 손보사들의 경우 누적적자가 이미 자본금과 지급준비금까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인초청 손해보험 세미나 개최

대한손해보험협회는 2월15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중견 언론인(경제부장) 13명을 초청, 손해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